

교회소식

광 고

1. 2부 예배 후 정기당회로 모입니다.
2. 다음 주일은 맥추감사주일입니다. 준비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3. 오후 예배 찬양은 호산나 찬양대입니다.(연습: 오후2시, 소망관)
4. 금요기도회 차량운행을 수요기도회와 동일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지난주부터)

교인동정

*생일축하합니다: 박윤정

*식사대접: 김영권장로(정영주권사)/지난 장례에 베푸신 은혜와 성도들의 위로에 감사드립니다.

교계동정

*제43차 SFC대학생대회: - 일 시: 2016.6.28(화)~7.2(토) - 장소: 충신대학원(양지)

- 교회출발: 28일(화) 오후 1:30

교회기도제목

1. 교육부서 여름사역이 은혜가운데 준비되고 모든 교회가 헌신하여 큰 열매가 있게 하소서.
2. 교육부서 여름사역에 열정과 시간과 물질로 헌신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소서.
3. 환우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을 새롭게 하시며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4. 금요기도회에 찬송의 은혜와 말씀의 축복과 기도의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 주소서.
5. 새 가족이 교회에 잘 정착하게 하시어 구원받는 성도가 날마다 더하게 하소서.

모임 / 청지기안내

이번 주 청지기		담 당	모임안내	시 간	장 소
주일 새벽찬양	이번주	제4남전도회	전도특공대	매주(수) 오전 10:30	교회앞
	다음주	여 5, 6목장	중보기도회	매주(목) 오전 10:30	사랑관
금주 수요찬양	여15, 16목장	금요기도회	매주(금) 오후 8시	사랑관	
오늘 식당봉사	제3여전도회	새가족부모임	매주(주) 2부예배후	각교실	

7월 교회행사

- 3일: 맥추감사주일, 신일비전헌신예배 • 10일: 각 기관 월례회
- 17일: 제3남, 4여전도회 헌신예배 • 23(토)~24(주), 31(주):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 28(목)~30(토) 중고등부 여름수련회 • 31일: 정기당회

◆ 7월 안내위원 1부: 박영숙A, 임희자 2부: 정영주, 신선화

◆ 7월 헌금위원 1부: 박영숙A, 임희자 2부: 이승호, 오승엽, 소재익, 이진석, 정정주, 하문숙

새 가족

번호	성 명	목장	인 도 자	주 소	전 화	소속기관
	함완식 김명순		김종남 곽복남	대덕구 중리동 238-6 성민빌라 303 동구 용전동 243-26	010-4328-8969 010-3402-0141	1남전도회 4여전도회

주일낮예배

1부: 오전 9시 인도 권 칠 현 목사
2부: 오전 11시 설교 권 칠 현 목사

♣ 사도신경..... 다같이

♣ 찬 송 다같이

29장

40장

28장

기 도 1부/양문주 장로
2부/원용국 장로

성경말씀 인도자

신명기 8:1~20 (구 P274)

찬 양 1부/호 산 나 찬양대
2부/할렐루야 찬양대

말씀선포 설교자

하나님을 기억하라

기 도 설교자

찬 송 301장다같이

헌 금 다같이

감사와 축복 인도자

♣ 찬 송..... 주기도문송다같이

♣ 축 도 설교자

광 고 인도자

✚ 다음주 기도 1부/ 우성한 장로
2부/ 박권용 장로

♣ 표는 일어나 주십시오

주일오후예배

오후 3시 인도 설교 백 진 국 강도사

예배선언 인도자

다함께 찬양을...

기 도 윤성욱 집사

성경말씀 인도자

요한복음 6:38~40 (신 P153)

찬 양 호산나 찬양대

말씀선포 설교자

나는 보냄 받은 자다

찬 송 341장 다같이

광 고 인도자

축 도 담임목사

✚ 다음주 기도/ 이옥영 집사

수요기도회

오후 7:30 인도 설교 권 칠 현 목사

목 도 다같이

찬 송 545장 다같이

기 도 구남량 권사

성경말씀 인도자

마태복음 9:1~8 (신 P13)

말씀선포 설교자

믿음의 사람들

목장찬양 여15, 16 목장

축 도 설교자

기 도 회

✚ 다음주 찬양 / 1청년 목장

✚ 다음주 기도 / 이정자 권사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Since. 1978

No 25. 2016. 6. 26



진리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

대전신일교회

금년목표:

지역과 열방을 변화시키는 교회(고후 5:17)

1. 전파하는 교회(전도, 선교)
2. 가르치는 교회(교육, 훈련)
3. 치료하는 교회(예배, 상담)
4. 봉사하는 교회(섬김, 나눔)

교회를 섬기시는 분

담임목사 권칠현

부 목 사 최영준

강 도 사 백진국 강성우

장 로 김제곤 박권용 우성한 김명권 양문주 남동균 원용국
박근용 안재경

은퇴장로 이수영 정길원 정태수 윤선욱 우호선 김종남 강일창

찬양지휘 이옥영 송명남

반 주 강영원 김진영 강경숙 조수정 곽정자

기 악 윤현덕 김성욱 남정아 안소연 윤혜진 정은지

[34541]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517번길 14(용전동)

Tel. 042) 622-7724(교회) 625-7724(목사관) 625-7723(당회실)

Fax. 042) 624-7721 www.no1shinil.org

초 대 합 니 다

1. 신일교회는 주님의 진리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변화와 성숙을 향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 아픈 곳을 치료하는 교회, 섬김으로 봉사하는 교회로서 세상과 이웃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로 날마다 성장하고 있습니다.

2. 신일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는 교회입니다.

지역사회와 연대를 가지고 구제와 장학사업 등 사회복지에 힘쓰며 가정사역, 치유사역을 통해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데 중점을 두어 세상의 빛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 신일교회는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다음 세대 주역인 자녀들을 위해 교사정예화와 다양한 커리큘럼 개발을 통해 교육현장을 혁신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젊은이를 위한 찬양예배 활성화와 새가족양육, 부부성경공부, 제자훈련 등 각종 평신도 훈련과정을 통해 건강한 교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배 시 간

예 배	주 일 낮 예 배	1부/오전 9시, 2부/오전 11시	본 당
	주 일 오 후 예 배	오후 3시	본 당
	수 요 기 도 회	저녁 7시30분	본 당
	새 벽 기 도 회	새벽 5시	사 랑 관
	심 야 기 도 회	금요일 저녁 8시	사 랑 관
제 자 교 육	수 요 전 도	수요일 오전 10시	소 망 관
	중 보 기 도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사 랑 관
	목 장 성 경 공 부	목장별로	각 교 실
	새 가족 성경공부	2부예배 후	각 교 실
주 일 학 교	유 치 부	주일 오전 9시	사 랑 관
	초 등 부	주일 오전 9시	교육관 1층
	초 등 부 오 후 예 배	주일 오후 1시	교육관 2층
	중 고 등 부	주일 오후 1시	교육관 1층
	2, 3 청 년 회	주일 오후 1시	교육관 2층

우리가 돕는 교회 및 기관

- 1. 협력선교사 :** 프랑스/박신희, 터키/곽동신, C국/오성학, 국내이주민/김복경, C국/하요한, 필리핀/박원제, 시에라리온/윤지원, 아르헨티나/윤춘식, 파라과이/이태호, 인도네시아/배성운, 캄보디아/김성섭, 차양마이/인터넷방송, 미얀마/김인, 태국/정규호, 필리핀/남후수, 필리핀 추수신학교/오일환
- 2. 미자립교회 :** 벨레교회/창원군인교회, 꿈의교회, 행복한사람들의교회, 의령삼일교회, 청송농인교회, 영동원당교회
- 3. 학원 선교 :** 대전충청지역 S.F.C. 간사/ 이성은, 김지효
- 4. 기관 선교 :** 극동방송국/대전, 북한어린이 사랑의 빵/한민족복지재단, 고신장학회
- 5. 문서 선교 :** 기독교보사, 월간고신사, 코람데오닷컴사

향기로운예물

◆ 십일조현금

김명숙,김영민(함현숙),김진승(윤라미),김춘복,남동균(윤현덕),박석문(정인선),박영숙A,박희현,박희난,백진국,송정희,신금순,신동영(강경숙),안재경(정은숙),우현성,유태환,이도화,이진석(윤혜진),이혜숙,정승환(정옥자),조성철(이혜련),채재규,최영준(한은정)

◆ 감사헌금

강성우(오이진),강철원(이지영),권철현(박춘화),김영곤(정영주),김서연,김성원,김시영(이지향),김영민,김재홍(한영자),김종남,김진승,김춘복,남동균(윤현덕),박석문(정인선),박순국(조수정),박영혜,박윤서,박은성,성영옥,성형건(윤송희),소재익(김미화),심희숙,안재경(정은숙),안진성,양문주(권유순),오승엽(김영희),우성환(정혜민),우현성,원용국(김복금),유태환,윤성욱(김신혜),이규홍(청년부),이태곤(엄경지),정영주,정옥근(이경미),최영준(한은정),한영실,함돈수(곽정자),함완식,함정인,함정혁

◆ 비전헌금

강성우(오이진),김대윤(박채리),김영민(함현숙),김진승(윤라미),김춘복,우현성,채재규

◆ 선교헌금

강성우(오이진),강일창(고숙자),강춘자,김대윤(박채리),김영민(함현숙),김진승(윤라미),김춘복,우현성,윤성욱(김신혜),정옥근(이경미),정인택(이정숙),정태수(김정희),조성철(이혜련),채재규

◆ 일선번제헌금

김건국(김성욱),안재경,이영일(홍은미),이재현(라희),장은숙(안소연),정옥근,안스디자인

◆ 장학헌금

강성우(오이진),정옥근

◆ 건축헌금

강성우(오이진)

목장현황

2016. 6.13~6.19

초원	목 장	모인곳	출석	헌금	성경	다음장소	초원	목 장	모인곳	출석	헌금	성경	다음장소
남1초원	1 김종남	교 회	9	25,000	481	교 회	여3초원	5 김채욱	교 회	3	6,000	20	교 회
	2 강일창							6 고숙자	교 회	2	5,000	40	교 회
남2초원	3 김재곤	교 회	3	15,000	25	교 회	여4초원	7 곽복남	교 회	3	12,000	63	교 회
	4 우성환							8 구남량	교 회	5	25,000	70	교 회
남3초원	5 남동균	정옥근	3	15,000	65	원용국	여5초원	9 김복금	교 회	1	5,000	10	교 회
	6 안재경							10 함현숙	교 회	2	5,000	60	교 회
남4초원	7 오승엽	교 회				교 회	여6초원	11 윤현덕	교 회	3	18,000	25	교 회
	8 소재익							12 장은숙	교 회	3	10,000	20	교 회
여1초원(실버)	1 김명자	교 회	3	13,000	150	교 회	여7초원	13 신윤경	이수영	3	14,000	73	교 회
	2 김명숙							14 이경미	이수영	2	12,000	30	교 회
여2초원(실버)	3 권월성	교 회	4	13,000	165	교 회	여8초원	15 오이진	야외예배	6	10,000	20	야외예배
	4 정채순							16 김춘복	교 회	3	8,000	20	교 회
1청년	청년 박진우	교 회	6	10,000	68	교 회							

목회칼럼



화니 제인 크로스비(Fanny J. Crosby, 1820~1915)의 감사

‘화니’는 한평생 맹인으로 살면서 은혜로운 영혼의 찬송가 9,000여 편의 찬송시를 쓴 ‘세계 최고의 찬양 전도자’이자 ‘찬송가 시인’, 미국인이 뽑은 미국 대통령보다 더 존경하는 ‘금세기 최고의 인물’, 한국인이 뽑은 가장 ‘은혜로운 베스트 찬송가’의 주인공입니다.

31장(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40장(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176장(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240장(주가 맡긴 모든 역사) 255장(너희 죄 용약하나) 279장(인애하신 구세주여) 288장(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361장(기도하는 이 시간) 380장(나의 생명 되신 주) 384장(나의 갈 길 다 가도록) 391장(오 놀라운 구세주) 417장(주 예수 넓은 품에) 435장(나의 영원하신 기업) 439장(십자가로 가까이) 454장(주와 같이 되기를) 498장(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531장(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532장(주께로 한 걸음씩) 540장(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608장(후일에 생명 그칠 때) 615장(그 큰일을 행하신)

화니 크로스비는 1820년 3월 24일 미국 뉴욕 주의 작은 마을 ‘푸트담’에서 태어났는데 생후 1년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생후 6주부터 의사의 잘못된 약물 치료로 각막에 심한 손상을 입고 맹인이 되었습니다. 그 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95세까지 맹인으로 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화니는 평생 동안 그 의사를 원망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의사 선생님을 만나면 이 세상에서 가장 놀랍고 귀한 일을 했다고 감사의 말을 전하겠어요.”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맹인이 된 것이 시력을 잃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자 섭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화니가 성장할 때 외할머니는 그녀의 눈이 되어 주었습니다. 외할머니는 순수하고 경건한 청교도 신앙인으로서 주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린 화니와 할머니는 자주 한적한 교외를 거닐었습니다. 할머니는 화니가 볼 수는 없지만 만지고 냄새 맡고 맛을 보면서 경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에 대해 최대한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정상적인 사람과 똑같이 볼 수는 없지만 환상을 통해 멋진 자연을 꿈꿀 수 있었습니다.

화니는 15세 되던 해에 맹인학교를 들어가면서 자신에게 문학적인 재능이 있음을 깨닫고 대중이 함께 부를 수 있는 찬송시를 쓰는 꿈을 키워 하나님님의 은혜로 수많은 찬송시를 남겼습니다. 그녀는 시를 쓸 수 있도록 놀라운 재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일을 통하여 큰 기쁨을 누렸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화니를 찾아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화니에게 많은 은사를 주셨는데, 거기에 한 가지만 더해서 당신의 두 눈을 볼 수 있게 해주셨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자 화니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만약 내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 한 가지 부탁을 할 수 있었다면 나는 아마도 지금과 같이 맹인으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영화로운 하늘나라에서 뵈게 될 주님의 얼굴이 제가 가장 처음 보는 얼굴이기 위한 것입니다.” 또 어떤 성도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처한 상황을 볼 때 감사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무엇이 늘 그렇게 감사로 가득 차게 하나요?”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감사의 조건들은 아주 많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답니다.”

올 한해의 절반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으며 다음 주일은 2016년 맥추감사주일입니다. 조용한 시간을 마련하여 감사의 제목을 기록해 보십시오. ‘화니’처럼 감사하자면 노트 한권을 써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됩니다.